

‘토닥토닥 청년센터’ 청년취업 지원 허브 자리매김

상무점 개소 5년...면접정장 대여 1만4680명 이용
증명사진 촬영·모의면접·공유공간 등 무상 지원

광주시가 운영하는 ‘광주청년센터 토닥 토닥 상무점’이 실질적인 청년 구직 지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면접정장 대여부터 인공지능(AI) 취업 컨설팅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2020년 개소 이후 지난해 말까지 토닥토닥 상무점 면접정장 대여 서비스 누적 이용자가 1만4680명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이용자는 2122명이다.

이 서비스는 취업 면접을 앞둔 청년들이 정장 구매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

록 마련됐다. 구두·넥타이·벨트를 포함한 정장 세트를 1인당 연 5회, 1회당 최대 3박 4일까지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광주지역 기업 면접을 위해 방문하는 타지역 청년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면접정장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한 청년은 “첫 면접을 앞두고 정장을 맞추려니 한 달 알바비를 다 투자해야 할 것 같아 고민이었다”며 “토닥토닥 덕분에 몸에 딱 맞는 정장을 무사히 빌려서 면접에서도 좋은 첫 인상을 남긴 것 같다”고 전했다.

토닥토닥 상무점은 정장 대여 외에도 △



광주시가 운영하는 ‘광주청년센터 토닥토닥 상무점’이 실질적인 청년 구직 지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진은 이력서·프로필 사진 촬영 모습.

이력서·프로필 사진 촬영 △AI 취업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한다.

이력서·프로필 사진 촬영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11명이 이용해 누

적 1590명을 기록했다. 정장 대여 서비스와 연계해 바로 구직을 증명사진을 찍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촬영은 전문 사진작가가 진행하며, 현장에서 즉시 보정된 파일을 제공한다.

2023년 도입된 AI 취업지원 서비스는 자기소개서 평가·첨삭, 심층 모의면접, 3분 발표(스피치), NCS 문제풀이 등을 지원한다. 올해(1~10월) 888명이 이용했으며, 누적 이용자는 2774명에 이른다.

공유공간도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다. 스터디룸, 회의실, 인공지능 모의면접실 등으로 구성된 공간은 올해 7306명이 다녀갔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되며, 예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인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은 매월 모집과 동시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크다. 올해 1942명이 지원받았으며,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원의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2023년 시작된 이후 매년 약 2000명 내외의 청년이 혜택을 받고 있다.

토닥토닥의 모든 취업지원 서비스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youth.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료직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구직난이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토닥토닥을 비롯한 다양한 청년 지원 공간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안심하고 구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토닥토닥 상무점을 비롯해 청년일자리스태이션(동명·상무)과 각 자치구 청년공간인 청년센터 아지트·동명 청년창작소(동구), 청춘발산공작소·청년센터플러스·스타트업센터(서구), 청년와라(남구), 청춘이랑·청년어울림(북구), 청청플랫폼(광산구) 등 다양한 거점에서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쌀 재배면적 ‘최소’...전남, 생산량 1위 충남에 내줘

■ 농작물생산량 조사

3.2% 감소한 68만6504t

전국 평균 감소율 2.5배

적정생산 정책 효과 커

쌀 생산량 4년 연속줄어



지난해 쌀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전남이 올해는 충남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국가데이터처가 13일 발표한 2025년 쌀 재배면적(확정) 및 농작물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쌀 생산량은 68만 6504t으로 전년(70만9368t) 대비 3.2% 감소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5.3%), 울산(-4.9%) 다음으로 큰 감소폭을 보인 것이며, 전국 평균 감소율 1.3%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지역별 쌀 생산량을 보면 전남이 70만9368t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70만6282t), 전북(54만4982t), 경북(47만9887t), 경기(36만3303t) 등의 순이었다.

올해는 충남이 69만9819t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68만6504t), 전북(54만3137

t), 경북(47만4157t), 경기(36만9148t)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산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재배면적 축소로 분석된다.

올해 전남 재배면적은 14만2443ha로 지난해(14만7738ha) 보다 3.6% 감소했고, 충남 재배면적은 지난해 12만9786ha에서 올해 12만5271ha로 3.5% 줄었다. 이는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정부의 적정 생산 정책 추진 등에 따른 영향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이 약 354만t으로 작년보다 4만t 가량 줄면서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며 재배면적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였다.

올해 쌀 생산량은 353만99433t으로, 작년(358만4604t) 보다 1.3% 감소했다.

쌀 생산량은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2020년 350만7000t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전국 재배면적은 67만7514ha로 작년(69만7713ha)보다 2.9% 감소하며 역대 가장 적었다.

다만 단위면적당 생산성은 향상됐다. 10a당 생산량은 522kg으로 작년(514kg)보다 1.7%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생육 전반기 기상여건이 전년에 비해 양호해 병충해 등 피해가 줄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쌀 생산량조사는 전국 6248개 표본구역(논벼 6220개, 밭벼 28개)을 대상으로 농업소득 추계, 쌀 수급 대책 마련 등 농업 정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됐다.

송태경 기자 sty1235@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는 13일 광주본부에서 농협창업농지원센터와 함께 ‘농심전심 청년농업인 커뮤니티’를 운영했다.

농협 광주·전남본부, 전문 농업경영인 성장 지원

‘농심전심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운영

광주·전남 청년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농협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는 13일 광주본부에서 농협창업농지원센터와 함께 ‘농심전심 청년농업인 커뮤니티’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청년농부 사관학교 졸업생 등 청년농업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구축, 대화의 장 마련, 전문가 초빙 강좌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윤세진 농업경제연구소 공나양 이사가 ‘농산업 트렌드 및 세무 상담 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 청년농업인들이 실제 영농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세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농부사관학교는 농협중앙회가 만 45세 미만 창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4개월 장기 귀농 합숙 교육과정이다. 2018년 제1기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12개 기수, 64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귀농과 영농 정착에 성공하며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충경 농협창업농지원센터장은 “이번 커뮤니티가 농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본부와 협력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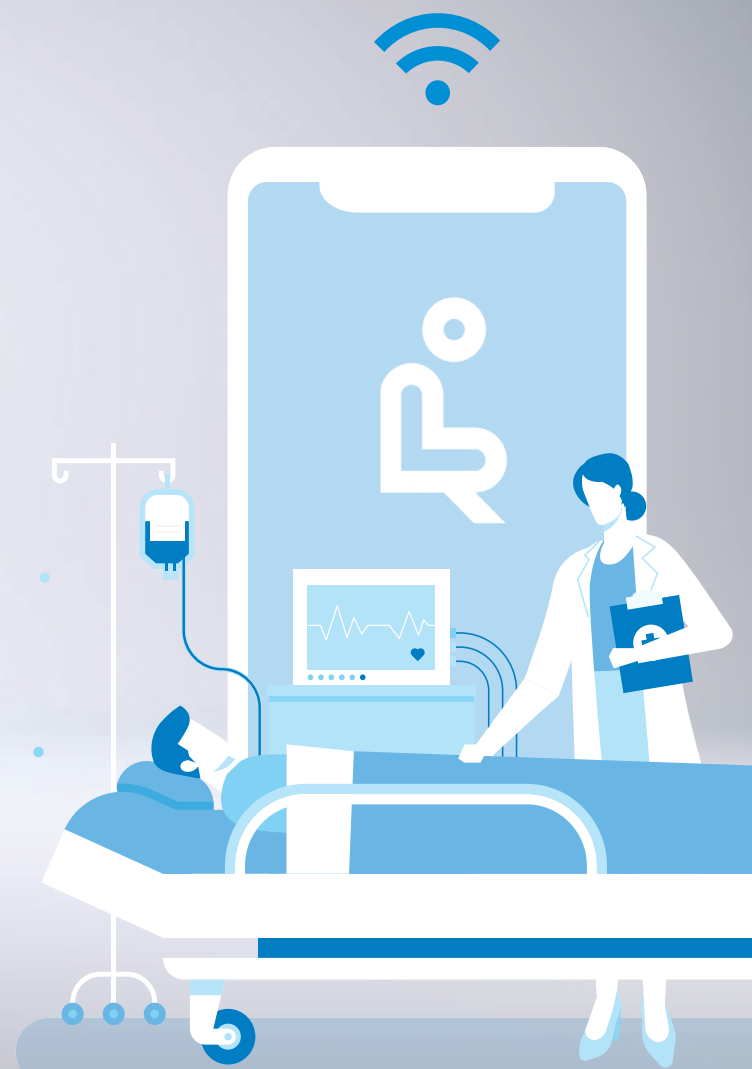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환자의 몸은 말하지만,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 막혀버린 흐름, 미세한 변화
환자의 몸은 수액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언어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습니까?
아이링거는 그 들리지 않는 대화를 데이터로 번역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유일한 통역가입니다.

iRINGER



이진성테크

(622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 중앙로 42 (오성동)
본사 Tel. 062-954-0627 Fax. 062-954-0620
연구소 Tel. 062-972-0629 Fax. 062-972-0629